

日 최대규모 한국사찰 '관음사 문화회관' 건립... 12월 5일 낙성

다목적 문화포교 공간... 교민사회의 자랑

인터뷰



○5월13일 상림사에서 법어를 마치고 불사의 일민회향을 기원하는 후회 '자비무공(慈悲無窮)'을 쓰는 서용스님.

“재일동포 신행귀의처 기대”

서용스님(고불총림 방장)

“관음사 문화회관이 대단히 잘 지어지고 있어.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곳에 신앙의 귀의처가 될 뿐만 아니라 울바르고 진실된 행복추구를 위한 수행 도량이 될 것 같아. 더구나 선조 영가까지 죄다 봉안해서 잘됐고, 동포들에게 편안한 곳이 되겠어.”

지난 5월13일 일본 오사카 관음사 문화회관 상량식장에서 만난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용스님(前 조계종 종정)은 기대감을 표했다.

일제때 일본 경도에서 대학을 나오고 일본 임제종 사찰에서 수행하면서 유나소임을 보기도 한 스님은 해방이후 태연 원연 소연스님 등 스승들을 통해 일본포교를 이끈 선구자.

“사실 그동안 동포들의 신앙 귀의처가 많은 편이 아니었어. 앞으로 관음사 문화회관이 들어서면 훌륭한 공간으로 포교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거야.”

스님은 인류가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자비심으로 서로 돕고 위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가 민족주의 인종차이 등을 떠나 이를 실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량식 범위

“불법은 21세기 인류의 희망”

축하합니다. 원연스님이 지금까지 동포 사부대중의 포교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로 관음사 중앙 대불사를 여러 신도 유지분들의 위대한 협력과 협조로 훌륭하게 하는 것을 축하하면서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날 세계 역사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세계의 역사적 현상은 르네상스이후 인간주의로 인간이 주인이던 역사를 창조해왔고 인류가 해방되면서 과학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주의는 오늘날 욕망에 물러 인간성이 파탄하는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

21세기를 창조하는 이때 인류는 혼미에 빠져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타락해 세계 역사는 큰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오묘 무명이 만연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다.

인류는 21세기 새로운 정신 원력을 바탕으로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구제는 인간을 초월한 참다운 본성으로 근원력을 살린 부처님법 밖에 없습니다. 서양의 철학도 어렵습니다. 동양의 불법으로 구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동양시대가 온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입니다. 이제 인간을 초월한 진실하고 결핍없이 자유자재한 근원적 주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지비한 마음 평화스런 형상으로 세계 역사를 창조해야 하는 이 시기에 관음사가 중앙불사를 통해 부처님법을 중흥하는 것은 중대한 불사이며, 책임감과 사명감이 크다고 봅니다.

관음사 문화회관이 장엄하게 건설돼 여러분이 훌륭하게 수행해서 인류평화와 행복의 도량이 되기를 확신하고 기원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불조 명맥의 그 자리에서 무한히 흥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불사(佛事)는 절로 되어야 한다”는 불교집안의 숙달같은 말이 있다. 바로 그런 불사가 일본에서 민족·종파·종단을 초월해 추진돼 한·일 양국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일본 최대 규모의 다목적 불교문화회관으로 오사카 이쿠노구 코리안 타운 한 가운데 건립되는 한국사찰 관음사 문화회관(주지 원연)이 그것.

이 불사는 규모도 방대하지만, 일본의 스님 이 보은의 마음으로 한국교민을 위한 사찰과 문화공간 건립을 발원하고 화주까지 나선데다 일본 대한민족 민단이 적극 후원하는 가운데 한국교민·일인 불자 등이 앞장서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이뤄지고 있어 더욱 큰 감동과 물림을 전하고 있다.

부침의 역사 천년을 접고 새 천년을 여는 시점에서 ‘멀고도 가까운’ 한·일 관계가 불교 정신으로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역할로도

대 불교학과를 마치고 스님자격을 취득한 이들과 일본인 친구 등이 나서서 돕고 있다.

이 불사에 불철주야 뛰고 있는 관음사 신도회장 김인자씨(63)는 “관음사 창건부터 인연을 맺어 번듯한 불교문화회관을 신축해서 가계돼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적신다.

민단 오사카본부 총재인 단장(65)은 관음사 문화회관 상량식장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 불사 기획단계에서 원연스님과 요시무라 스님 관음사신도회장이 찾아왔을 때 한국인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해 민단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종교목적의 사업에 후원을 했다”고 밝혔다. 총단장은 또한 “한국교민들에게 장의예식장 문제는 가장 절박한 실정”이라며 “사설 장의예식장은 비용이 세고, 일본 쪽에서 하거나 마음이 또한 묘한 것이 교민들의 심정이라 관음사 문화회관이 들어서면 대단히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이나미건축주식

지상 9층...장의예식장·납골당 등 시설 민족·종파초월 日人불자도 후원 나서

기대된다.

이 불사는 5년전 일본인 사업가 출신의 조동종 소속 요시무라스님(吉村大藏)이 원연스님을 찾아와 뜻을 밝히면서 급진적으로 추진됐다. 요시무라스님은 십여년전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교민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재기하게됐고, 5년간 출가하면서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교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장의시설과 납골당을 갖춘 한국사찰을 세워 시주해야겠다는 원을 세웠던 것. 마침내 시주를 할 한국인 스님을 물색했고 여운을 수렴해 적임자로 생면부지의 원연스님과 인연이 닿았고, 97년 8월 착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요시무라스님은 올 1월 간암으로 입적했고 그 뜻을 응속

회사 사장 이나미(稲見)는 “절 불사 과정을 처음부터 소상히 알고있습니다. 이런 사할 공사를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여기면서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량식에 참석한 원주불교회관 리선행법사는 “이 불사는 수좌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교포나 일본사람에게 신뢰를 받아온 원연스님의 수행력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5일 대대적인 낙성법회를 봉행하게 될 관음사 문화회관은 대지 360평에 지하 3층 지상 9층으로 연건평 1080평 규모의 초현대식 건축물이다.

토지매입 건축비 불구장등 총 총 예산 3백여만이 투입되는 관음사 문화회관은 지상 1층에 전통 한 국건축 양식의 법당이 조성되고, 2층은 장의예식장·5층에 문화 전시를 위한 공간이 자리잡으며, 3층부터 9층까지는 불교의식을 엄비한 납골당이 들어선다. 9층에는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모셔지고, 지하 1~3층 전체는 주차시설로 활용된다.

납골당에는 영가가 안치되면 관리비 없이 100년을 사용할 수 있고, 대·중·소형 크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수용규모는 소형 기준 10,000기이다.

오사카 이쿠노구는 14만 구민 가운데 4만여명이 한국교민으로 4명당 1명이 교민인 셈. 더구나 이 지역 코리안타운과 바로 이어진 중심가에 위치한 관음사 문화회관이 완공 되면 명실상부한 한국교민사회의 상징적인 문화포교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월5일 낙성법회를 가질 관음사 문화회관 조감도



○강도 70의 지진에도 견딜수 있도록 지하 30m를 파고, 특별한 공법으로 골조공사기 완성된 웅장한 모습의 관음사 문화회관 건립.



○5월13일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상량식에서 이 불사 화주인 요시무라스님의 영정도 함께 했다.



○불교장의문화와 교민들의 포교공간이 될 각 층의 납골당 모습. 3층부터 9층까지 각 층마다 지정보살님이 조성되고 최대 만여기의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전통불교의식의 납골당이 들어선다.



○상량식 후 스님들과 대중들이 추진위원회 사무실과 납골당 전시장을 돌아보고 있다.

“민중들 인생꿈 해결 힘쓰겠습니다”

주지 원연스님

“부처님께서 깨달아 중생에게 회향하신 근본적인 의미를 생활화 사회화해야 한다는 인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는 12월5일 낙성될 관음사 문화회관은 이곳 코리아 타운을 중심으로 동포들을 비롯한 민중들의 생노병사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상담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활동을 폭넓게 벌일 것입니다.”

일본 최대규모의 다목적 한국사찰을 세우는 오사카 관음사 주지 원연스님은 불사 규모와는 대조적으로 조용하면서도 그러나 단호하게 포부를 밝혔다.

민중불교를 주창하고 있는 스님은 88년 관음사 개원이후 대일(民衆佛敎)을 발원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는 유일하게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열어왔다. 바른 종교 바른 생활을 권장방향으로 광복절 판형 8쪽의 (민중불교)지는 한 호도 결 불량이 100세대 일본인 신도를 포함한 1천500세대 신도 가정에 일일이 우편발송되고 있다.

“일본 경제 원동력은 생활불교 정신”

“지금까지 절대로 신도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승복이 작업복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백정스님의 청규 정신을 명심하며 살았습니다. 발을 가는 대신 그저 조용히 일하며 수행

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관음사 운영 방향도 민중들의 진실된 생활속의 위안처로 역할하는데 맞췄습니다. 더구나 문화회관이 완성되면 ‘관음사’가 아니라 고집 않습니다. 교민 전체의 신행 문화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하심(下心)제일’의 스님으로 지역에서도 정경이나 있는 스님은 일본경제와 불교의 역할에 대해 확고한 관(觀)을 지니고 있다.

“일본경제의 부흥은 불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언·일연스님들의 생활불교 민중불교 정신을 토대로 선불교가 대중속에서 살아나면서 경제를 기하급수적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물질세계는 정신적인 문제와 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용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82년 도일해 불교대학에서 수학했고, 88년 오사카 이쿠노구에 개인 집을 임대해 관음사를 개원했다.

인터뷰

